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독감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독감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연장

2 세에서 18 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약사가 독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법으로 행정명령을 법제화하기 위해 제안하는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실험실에서 확진된 독감 9 퍼센트 증가

2 주 연속 감소하여 지난주 이후 입원 환자 13 퍼센트 감소

주지사의 1월 25일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이후, 약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2 세에서 18 세 사이의 뉴욕 주민 8,468 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 세에서 18 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약사가 독감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긴급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인 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뉴욕주 전 지역에서 독감 확산이 계속 증가하면서 독감 백신 접종을 원하는 뉴욕 가정이 쉽고 편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주 실험실에서 확인된 18,258 건의 인플루엔자 사례가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보고되었습니다. 2004년에 보고가 시작된 이후 주중에 발생한 가장 많은 인플루엔자 건수입니다. 12월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한다고 발표된 이후, 뉴욕 주민 2,160 명이 실험실에서 확진된 인플루엔자로 입원하면서 주간 입원 건수가 2 주 연속 감소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독감 확산이 지속함에 따라,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고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뉴욕 주민들께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독감 백신을 계속 저렴한 가격에 쉽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연장된 독감 백신 접종 기회를 활용하여 접종을 받으시도록 모든 뉴욕 주민께 당부드립니다.”

이 연장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2 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 약사가 18 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면역제를 투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뉴욕주 교육법(education law) 조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킵니다. 학부모 및 보호자는 방문 전 약국에 미리 연락하여 이 연령대의 환자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24개월 된 아이가 있는 학부모 및 보호자 또한 예방 접종과 관련하여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 Cuomo 주지사는 176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법제화하여 약사가 2 세에서 18 세 사이의 어린이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백신을 편하게 접종받도록, 뉴욕주 교육법(state education law)을 개정하는 [30일간의 예산 개정안\(Budget Amendment\)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이 법안은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어린이와 개인에게 백신을 제공하는 [뉴욕주 어린이 백신 프로그램\(New York State Vaccines for Children Program\)](#)에 약국들이 등록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백신 프로그램(Vaccines for Children program)에 등록할 것을 의사 개개인에게 요청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전에 지역 차원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더 확대하기 위해 뉴욕주의 전체 카운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을 승인하도록](#)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지시했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웹 사이트는 지역의 독감 백신 접종 클리닉을 찾기 위해 원 스톱 슝 접근 방식을 뉴욕 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 보건부\(local health department\)](#)의 웹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또한 <http://www.vaccinefinder.org/>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한 뉴욕주 내의 장소들을 찾을 수 있는 헬스맵 백신 파인더(HealthMap Vaccine Finder)의 사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인플루엔자로 입원한 뉴욕 주민이 이전 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주민은 반드시 독감을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 전 지역의 주민들이 독감 백신과 항 바이러스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을 포함하여 뉴욕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감의 예방이 독감의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예방 접종을 아직 받지 않으신 경우, 백신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는 집에서 쉬면서 손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지난 11주 동안, 뉴욕 전 지역에 인플루엔자가 지리적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2월 17일 현재, 실험실에서 확진된 인플루엔자 사례는 87,619 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뉴욕주에서는 16,578 명이 인플루엔자로 입원했습니다. 올해 독감 시즌에 소아 인플루엔자로 어린이 5 명이 사망했습니다. 5 세 미만 어린이 14,175 명이 실험실에서 인플루엔자로 확진받았으며 1,098 명이 입원했습니다.

작년 독감 유행 시즌에는 뉴욕에서 12,912명의 독감 관련 환자가 입원했으며 8건의 소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총 25건의 독감으로 인한 소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며 일 년에 평균 10,571명의 독감 관련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또한, 질병 관리 센터(CDC)는 매우 아프거나 심각한 독감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독감 항바이러스 약물로 조기에 치료할 것을 권고합니다. 항바이러스 약물은 증상이 처음 나타나는 48 시간 이내에 사용하기 시작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인플루엔자 항 바이러스 약품, 특히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경구 현탁제 및 일반 오셀타미비르 캡슐의 특정 약품 제형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가 이 의약품의 모든 잠재적인 공급처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백신 공급 또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민들이 공급업체에 미리 전화 문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아플 때 집에서 지내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이 손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일부 바이러스와 달리 독감은 비누와 뜨거운 물에 쉽게 죽습니다.
- 세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손에 있는 세균이 다른 사람에게 퍼지지 않도록 비누와 뜨거운 물로 손을 최소한 20초 동안 자주 씻으십시오.
-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코올로 만들어진 손 소독제를 휴대하십시오. 알코올을 최소 60% 이상 함유한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에다 하지 마십시오. 대신 티슈로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독감에 걸린 사람들은 증상이 시작된 이후 최대 7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독감을 옮길 수 있습니다.

독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www.health.ny.gov/diseases/communicable/influenza/seasonal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